

조선시대 전기 조선통신사와 일본사신 간의 교역품을 통하여 본 복식문화연구

이 자 연
신라대학교 의류학과

序 言

본 연구에서는 朝鮮時代 前期의 韓日關係에서 朝鮮通信使와 日本使臣간의 政治的 文化的 交流가 빈번하였던 점에 注目하여, 이들 두 나라간의 通商外交를 통하여 파생된 交易物品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韓日關係에서의 服飾文化 交流의 한 면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通信使行과 日本使臣과의 交易이 가능하게 되었던 朝鮮時代 前期의 朝日間의 政治的 狀況을 알아보고 朝日貿易의 性格을 把握한다. 둘째, 朝日間 貿易의 開港時期 및 場所, 그리고 조선통신사의 入國狀況에 대하여 알아본다. 셋째, 일본으로부터의 收入品과 그 特性에 대하여 살펴봄, 넷째 당시 收入品 중 가장 去來量이 많았던 蘇木에 관하여 交易內容과 去來量을 살펴봄으로써 朝日 間의 服飾文化 交流의 한 면을 밝힌다. 研究方法으로는 각종 文獻과 關聯史料 等の 記錄을 參考로 하여 考察한다.

朝鮮前期 朝日貿易의 展開

1. 倭寇의 出現과 朝日貿易의 性格

조선전기의 대일관계는 왜구의 문제에서부터 찾아 볼 수가 있는데, 일본으로부터의 침입은 일찌기 삼국시대 때부터 자주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삼국사기의 기록과 내물왕 44년(389년)에 고구려 광개토태왕 때 구원을 요청한 내용이 광개토태왕의 碑文과, 文武王의 感恩寺址에 기록되어 있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도 왜구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倭寇의 侵入이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일 간의 무역은 당시 日本國王은 明의 冊封을 받고 있으므로 朝鮮의 王과 대등한 관계에서 무역이 행하여졌으나, 일본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諸巨酋使나 諸酋使는 日本國王과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무역이 행하여졌다. 즉 對日 貿易의 性格은 日本 國王使와의 交易과 日本의 여러 豪族들을 상대로 個別的으로 이루어진 交易의 형태를 취한 多元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交易은 國王使 어하 地域의 諸侯들이 朝鮮의 王에게 물품을

獻上하면 朝鮮이 答禮로 回賜品을 보내는 형태였다. 이러한 進獻과 回賜의 방법은 초기에는 조선이 무역보다는 전통적인 交隣의 外交關係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2. 三浦의 開港과 日本使船의 出入狀況

세종 8년(1426) 정월에는 대마도의 請願으로 鹽浦까지 개항하므로서, 乃而浦 부산포 鹽浦의 三浦가 開港地로 지정되어, 여러 곳에서 使送하는 倭商들은 이 三浦를 통하여 來往하게 되었으며, 三浦는 韓日間 通交의 中心이 되었다. 三浦를 통하여 들어오는 倭船의 種別은 일반적으로 歲遣船이라는 歲約船, 興利船, 興販船등의 무역선과 그밖에 사절의 임무를 띠고 入朝하는 使送船인 國王使船, 九州探題使船, 諸 地方巨酋使船 등이 있다.

왜선의 출입상황에 관하여는 조선건국 후 왜선의 출입을 통계하면서부터 중종5년(1510) 삼포왜란까지 부산포를 출입한 倭船 數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三浦에는 막부장군의 國王使船과 호족의 巨酋船, 九州절도사선, 對馬島船, 受職人船, 受圖書人船 등 歲遣船의 허용된 것과 조약을 맺은 各級 船의 총수는 204船 내지 218船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收入物品

1. 收入品目과 特徵

對日間の 交易에 있어서, 日本에서 朝鮮으로 온 主要品目은 染料, 香料를 비롯하여 藥材類, 銀 銅 硫黃 등 다양한 품목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 유입되는 物資 중 染料, 胡椒 등은 당시 동남아시아 원산의 것들로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의 仲介商을 일본이 하였고, 이것이 조선으로 하나의 交易品目이 되어 流入되었다. 각종 染料와 胡椒, 藥材 등과 같은 수입 물품은 주로 일반 서민의 필수품이 아니고 王室과 貴族들의 需用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蘇木, 明礬, 朱紅은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로서 王室이나 貴族階級の 禮服을 製作하는 原料가 되었으며, 胡椒는 藥用으로 또는 貴族들의 嗜好調味料로 사용되면서 점차 국내에서의 소비량도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2. 蘇木 收入과 朝鮮前期의 服飾文化

蘇木은 조선시대 전기 일본과의 교역품 중, 가장 많이 수입이 된 물품으로, 일본국내 생산물이 아닌 동남아시아 중계물자의 하나이다. 蘇木의 용도는 약재로도 사용이 되었으나, 염료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특히 蘇木은 황갈색이 강하고 광택이 있으며, 염색이 잘 되고 화려한 紅色을 얻을 수 있는 염료로, 『林園經濟志』에는 蘇木의 木紅色이 明礬에 의하여 홍색으로 발색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蘇木의 교역에 관하여 살펴보면, 蘇木이 우리 나라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로 추정되며, 그 후 高麗時代 靖宗 7년(1041) 11월에 大蘇木을 가져왔다는 기록과 昌王代(1389)에는 琉球國의 사신으로부터 蘇木 600斤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朝鮮時代 前期에도 琉球國을 비롯하여 남방의 나라와도 교역이 있어, 태조 2년(1393)에는 暹羅斛國의 사신이 蘇木 1000근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

한편, 대일 간의 蘇木貿易은 태종 조에 이르러 일본으로부터의 蘇木 收入이 있었는데, 태종

6년(1406) 12월에 丹州守 肥州守가 사신을 파견하여 蘇木 등을 進獻한 사실이 있었고 동 11년 2월에는 각도에서 진상하는 물품 중에 蘇木染料가 사용된 것을 보면, 당시의 蘇木收入量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蘇木의 거래는 세종 조에 이르러 더욱 활발히 행하여져, 대일 蘇木收入量은 격증하였다. 세종 원년(1455) 9월의 호조와 예조의 牒에 의하면, 일본사신이 가지고 온 蘇木의 가격이 正布 약 萬餘 匹이 된다고 하며, 세종 3년에는 거래된 蘇木이 11,000근에 달하였다고 한다. 世宗代 以來 日本使臣의 도래는 증가되었고 蘇木의 수입량도 계속하여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蘇木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조선시대 전기에는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의복에 대한 사치의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것이다.

結 言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전기의 朝日關係에서 이들 두 나라간의 通商外交를 통하여 과생된 交易物品 중, 일본으로부터의 收入品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朝日關係에서의 服飾文化 交流의 한 면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朝鮮前期 日本과의 교역은 日本使臣이 조선에 進上을 하면, 조선에서는 그 答禮로 回賜品을 보내는 형태의 交易이었다. 開港地로는 世宗 8년에 부산포, 乃而浦, 鹽浦의 三浦가 開港地로 지정되었으며, 당시 三浦는 한일통교의 중심이 되었다.

朝日間の 交易品을 보면, 일본에서 조선으로 수입된 물품은 주로 옷감에 염색을 하는 染料 및 媒染類, 藥材類, 金屬類, 香料 등 다양한 품목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동남아시아 중계품이었다. 특히 赤色 染料로 사용된 蘇木은 동남아시아 중계품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물품이었는데, 세종 원년부터 9년까지 蘇木 수입량을 보면 연평균 7,042斤에 달할 정도로 거래량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蘇木의 소비는 주로 王室家나 귀족계급의 禮服을 제작하는 원료로 사용이 되었으며, 그 가격은 成宗代의 경우를 보면, 蘇木 10斤에 대하여 正布 95.37尺에 이르는 고가의 품목이었다.

朝鮮前期에 있어 蘇木의 收入이 날로 增加趨勢에 있었던 것은, 赤色이 우리의 意識構造와 生活을 支配하는 색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赤色選好思想으로 말미암아, 朝日間の 蘇木交易은 朝鮮前期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品目으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蘇木의 流入이 증가하면서 朝鮮時代前期에는 衣服에 奢侈의 傾向이 생기는 등 社會的인 問題로까지 發展하게 되었다. 이러한 朝鮮前期부터 이루어진 활발한 交易物資의 交流는, 물론 日本使臣의 來往에 의하여 생겨난 결과로서, 服飾文化 面에 있어서도 단편적이거나 그 일면을 엿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